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익산시,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관계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사업 최종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전춘식 기념관 조성 자문위원장 신귀백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 회장 일제

강점기 군산역사관 박천환 대표,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이달 중 기념관 내부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가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단체들과 꾸준한 간담회와 두 차례 보고회를 거쳐 기념관 건립 기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항일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4·4단체운동 기념공원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익산은 일제강점기 전후로 치열하게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임에 비해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장소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군산 우성화학 1000만원 · 지곡교회 백미10kg 1000포기탁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18일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인 (주)우성화학(대표 석상신)이 설을 맞아 올해에도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보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우성화학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제 육성 장학금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석상신 대표는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군산지곡교회(담임목사 양성진)도 사랑의 쌀 나눔행사 카이데이를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

께 온정을 나누고자 백미 10kg 1,000포(3,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군산지곡교회는 매년 연말연시 쌀기탁 외에도 장애우가정 주거환경 사업 및 소아암 어린이돕기 후원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나눔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고재덕 장로는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으며,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성금·품을 전달해 주신 기업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설명절 공중화장실 방역 특별점검 추진

군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월 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휴게소, 터미널, 역 등 화장실과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코로나19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방역지침 안내, 홍보, 방역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소독 및 분뇨수거,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등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이용자의 불안심을 해소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활용해 물카 설치 여부 등 불법 촬영도 동시에 추진된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주택건설공사장 특별안전 점검 실시

군산시가 주택건설 공사장 3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광주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곡 호수공원아파트, 나운금호어울림센터, 디오션시티 더샵 2차 등 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시는 강풍, 거추장질 보강조치 철거, 인양작업 시 콘크리트 강도 사전 시험 후 진행 지시,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 철거, 크랙 발생 구간 관리 및 보수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도 차원으로 추가 안전점검 등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택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 수산업 · 어촌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로 어촌 활력 도모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18일까지 2023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 분야 정부지원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자원에 지원 자격이 명

시된 군산시민으로 시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계획을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라북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시는 수산식품산업분야 공공사업으로 수산가공의 선진화 및 수산업의 미래 스마트산업 도약을 위한 '개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발굴 국가예산 확보로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개별 수산분야 지원 사업별로 자세

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사전정보공표·부서별사전정보공표목록·국고보조금정보·보조금사업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수산진흥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SNS홍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어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 가공 및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민주도형 어촌관광과 연계한 혁신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어촌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농업 경쟁력 강화 중 소형 농기계 지원

익산시가 지역 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속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200여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표에 등록된

영세용 적용 농업기계(500만원 미만)에 대해 구입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8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계가 없는 동 지역은 농촌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의 보급으로 농작업 기계화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시, 아이사랑 콜택시 확대 운영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아이사랑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아이사랑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 1대로 운행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 전담 택시 추가 1대 도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택시 이용은 임신부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기본요금 700원, 상한액 2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이용신청서와 산모수첩(임산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아동 동반 시)을 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전화 853-1334, 팩스 853-1335)에 제출해 사전 등록하면, 한 번의 전화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 콜택시는 임신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익산=이득훈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